

4.13 선거 RUN·RUN·RUN

김윤덕 예비후보, “중요한 것은 미래정치 실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예비후보(전주 시갑·사진)는 20일 “4.13 총선 승리로 정권교체 발판 마련하겠다”며 총선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김 예비후보는 “4년 전에는 우여곡절 끝에 전국에서 가장 늦은 경선을 통과해 주목을 받으며 공천장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가장 먼저 단수공천이 확정됐다면서 “이런 결과는 지난 4년간 현장중심 소통정치를 실천하고 지역현안해결에 앞장섰던 모습을 전주시민들이 알아주셨기 때문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11명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불과 4명만 공천장을 다시 받았다. 이는 전북도민의 실망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로 착잡한 심경과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북도민의 민심을 회복하고 당당한 평가를 호소하며 미래의 정치를 실천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4.13 총선은 전북 정치가 미래로 전진하는 나열 아니면 과거로 후퇴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규정하며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정치가 아니라 개인영달을 위한 한의 정치, 자기만기리며 동정애 호소하는 정치,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고 비뚤에 의지하는 과거의 정치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정영수 기자

김윤태 고려대 교수, 더민주 군산 공천 확정

김윤태(52) 고려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군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확정됐다. (관련기사 8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오전 전국 9곳 전략 및 단수 공천 후보자를 공개한 가운데 김 교수를 군산선거구 전략 공천 후보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당의 현명한 결정과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에 감사드립니다”며 “그 동안 당의 예비후보로 활동을 해오신 후보님들께 유감이지만 함께 힘을 합쳐 승리를 위해 매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김 교수는 “야당의 분열로 인해 거대여당의 장기집권을 방조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 정부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강한 야당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고 출신인 김윤태 교수는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런던정경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현재 고려대 사회학과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김 교수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시발로 본격적으로 정치권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으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며 시민사회 사회복지 분야 정책 전문가로 왕성한 활동을 벌여왔다. /신광영 기자

박민수 의원, “지지해준 주민들께 깊은 감사”

더불어민주당 박민수 의원(완주무진장·사진)은 19일 경선에서 탈락한데 대한 완주·무주·진안·장수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박 의원은 “끝까지 지지해주시는 완주·무주·진안·장수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서 “아울러 저의 부족으로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몹시 힘들어도 900개가 넘는 마을을 일일이 찾아가 직접 소통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정치라 생각했다”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도 성실한 의정활동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도라고 믿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족한 저를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질책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는 여러분께 일일이 찾아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다”면서 “우리 정치문화의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강팔문 예비후보, 익산시장 본선 후보자 확정

강팔문 익산시장 예비후보(이하 강 후보)가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본선 후보자로 확정됐다.

이날 경선행사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70%의 국민여론조사와 30% 권리당원 투표로 결선 후보자를 결정하기로 하고 재보궐선거 후보자 선출대회를 팜봉동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오후 4시 40분경 개표결과에 의하면 강팔문 후보는 현장 권리당원투표에서 685표를 얻었고, 황호열 후보는 302표를 얻는데 그쳤다. 국민참여 여론조사에서는 강팔문 후보가 44.85%, 황호열 후보가 55.15%를 기록했다. 게다가 강팔문 후보는 신인 가점 10%를 포함해 합산 결과 57.44%로 황호열 후보 보다 5%정도 앞서서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한편 이날 열린 후보자 선출대회에는 익산시장 경선 투표 대상 권리당원 6882명 중 987명이 참여해 15%정도의 투표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에서 강팔문 예비후보가 선출됐고 익산 제4선거구 도의원 재보궐 경선 투표는 대상 당원 1432명 중 302명이 참여해 20.88%의 투표율을 해 최영규 도의원 예비후보가 본선 진출 후보로 선출됐다. /익산·정영원 기자



‘쇄신’ 외치던 여야... 물갈이 양·질 모두 ‘실망’

20대 국회의원총선거 후보자를 결정하는 ‘공천’ 작업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공천 성적표가 매우 실망스럽다는 평가다. 여야는 당초 정치권의 쇄신, 혁신을 외치며 강도높은 물갈이와 공정한 공천을 예고했지만 양과 질에서 모두 매우 미흡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일 현재 새누리당의 현역 공천 탈락 비율은 32.5%, 더민주 33.3%다. 양당 모두 추가 공천이 남아있어 비율은 다소 변화가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을 듯 하다.

근래 치러진 총선에서 평균적으로 여당은 40% 인파의 물갈이가, 야당은 30%대의 물갈이가 이뤄졌던 것을 감안하면 기준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조금 못미치는 수준인 셈이다. 여야가 모두 대폭 물갈이를 공언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쉽다. 물갈이의 내용 역시 여는 총선과 마찬가지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새누리당은 18대 39%(128명 중 50명), 19대 46.6%(174명 중 81명)의 현역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더민주 18대 32%, 19대 37.1%(89명 중 33명)의 현역의원에게 공천을 주지 않았다.

이번 공천과정에서 물갈이를 피하기 위해 당을 옮겨다니는 의원들의 모습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새누리당에서 낙선된 진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고, 더민주에서 공천 자격을 박탈당한 신기남 의원은 원의 민주당으로 옮겨갔다.

더민주에서 컷오프된 정호준 의원은 국민의당으로 옮겨 공천을 받았고, 더민주

피튀기는 새누리당 공천

진박 ‘황금마차’·비박 ‘피바람’
공언한 ‘상향식 공천’ 지키지 못해

컷오프자인 전정희 의원은 국민의당으로 이적, 경선에 나섰지만 또다시 쓰디쓴 패배를 맞았다.

◇피튀기는 與공천... 진박 ‘황금마차’ 비박 ‘피바람’

새누리당에서는 20일 현재 34명이 공천에서 탈락했다.

불출마를 선언한 이한구·유일호·김희선·이종진·김태호·이병석·강창희·이원구·손인준·송영근·신경림·양정영·박윤옥·이만우·이지스민·조명철·최봉홍 의원 등 17명을 합하면 모두 51명이 물갈이됐다. 재직 157석을 기준으로 현역의원의 32.5%가 물갈이된 셈이다.

단수공천으로 인해 컷오프된 현역 의원은 ▲진영(서울 용산) ▲이재오(서울 은평) ▲김정우(서울 양천) ▲김정실(부산 사하) ▲류성길(대구 동) ▲권은희(대구 북) ▲홍재민(대구 달서) ▲서상기(대구 북) ▲주호영(대구 수성) 의원 등 20명이다.

또 경선에서 패배한 의원은 ▲황인자(서울 마포) ▲민현주(인천 연수) 등 14명이다. 새누리당은 당초 ‘국민에게 공천권을 되

더민주 ‘시스템 공천’은 어디로?

‘강성’ 정청래·이해찬 등 컷오프 ‘하위 20% 배제’와 거리가 멀어

돌려드리겠다고 공언했던 ‘상향식 공천’도 지키지 못했다. 비박계인 김무성 대표가 친박에 밀려 뜻을 펴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사실상 공천이 ‘비박학살’ 수준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다. 반면 진박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공천을 받아 ‘황금마차’를 탔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민주 ‘시스템공천’ 어디로?

더민주 20일까지 모두 31명의 현역의원을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총선불출마를 선언한 문재인·최재성·홍중화·김용익 의원 등 4명과 보스쿨 아들 구재의·홍으로 공천권을 박탈당한 신기남 의원까지 포함하면 36명의 의원이 물갈이됐다.

20% 컷오프 탈락자 발표일인 지난달 24일 기준으로 재직의원 108명 중 33%가 물갈이된 셈이다.

더민주 20% 컷오프를 탈락시키는 컷오프를 통해 ▲신계륜(서울 성북) ▲노영민(충북 청주흥덕) ▲유인배(서울 도봉) ▲문희상(경기 의정부) ▲송호창(경기 의왕) ▲전정희(전북 익산) ▲김현(비례대표) ▲백근기(비례대표) ▲임수경(비례대표) ▲홍익태(비례대표) 의원 등 10명을 잘라냈다. /이성주 기자

비례 1번 박경미 교수·2번 김종인 대표

더민주,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1·2·6·13번만 배정·청년비례는 정은혜 이름 올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박경미 홍익대 교수를, 2번으로 김종인 비대위 대표를 각각 공천했다.

아울러 최은열 서강대 교수를 비례 6번, 송옥주 당 정책실장을 비례 13번에 배치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전날 열린 비대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례대표 공천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민주 1·2·6·13번 배정을 받은 4명은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순위가 부여될 전망이다.

A그룹에 속한 10명은 김종인 대표를 비롯 김성수 당 대변인 김숙희 서울시 의

회 회장 문미옥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 박경미 홍익대 교수, 박종현 전 공군참모총장, 양정숙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이용득 전 최고위원, 조희급 대구대 교수 최은열 서강대 교수 등이다.

B그룹에는 송옥주 당 정책실장(당직자), 심기준 강원도지사 정무특별(취임지역), 이덕희 서강대 교수 이수진 전국요산산업동조합연합회 위원장(노동), 이수현 당 선거대책위원, 이재서 총선대 교수(장애), 이철희 당 전략홍보보좌관, 정은혜 당 부대변인(청년), 정준호 한국여성성인지와 상임대표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성주 기자

이후 더민주 3선이상의 하위 50%, 재선 이하의 하위 30%를 대상으로 정밀심사를 한 후 공천관리위 가부투표로 추가 컷오프를 단행했다.

더민주 20% 컷오프를 앞서 ▲김기정(광주북)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이어 ▲정창대(서울 마포) ▲전병현(서울 동작) ▲이바경(서울 은평) ▲오영식(서울 강북) ▲정호준(서울 중성동) ▲이해찬(세종) ▲부좌현(경기 안성) ▲김동원(전북 남원) ▲최규선(전남 김제) 등 모두 10명을 컷오프했다.

경선에서는 ▲유대운(서울 강북) ▲이복희(공천) ▲최동익(동작) ▲김기준(양천) ▲정하나(노원) ▲박혜지(광주 서) ▲이상직(전북 전주) ▲김우남(제주) ▲박민수(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김광진(전남순천) ▲이윤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 등 11명이 잘라졌다.

더민주 역시 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에서 김종인 대표로 바뀌며 당초 공천했던 ‘시스템공천’의 취지가 퇴색됐다. 특히 친노의 좌파격인 이해찬 의원이 평가결과 하위 50%에 들지 않음에도 낙선되는 등 ‘시스템’과 거리가 먼 공천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더민주 20% 컷오프를 앞서 ▲김기정(광주북)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이어 ▲정창대(서울 마포) ▲전병현(서울 동작) ▲이바경(서울 은평) ▲오영식(서울 강북) ▲정호준(서울 중성동) ▲이해찬(세종) ▲부좌현(경기 안성) ▲김동원(전북 남원) ▲최규선(전남 김제) 등 모두 10명을 컷오프했다. /이성주 기자

심평원 전주지원 28일 개소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전주 지원이 오는 28일 개소식을 갖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19대 국회 첫해부터 4년간 국경감사 등을 통해 전북과 광주·전남을 모두 관할했던 광주지원의 지리적 접근성 문제, 의료정책 지원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간발하게 협의해온 끝에 전주에 심평원 지원을 유치해내는 결실을 맺었다.



김성주 의원은 “118을 강타했던 전북도민의 상처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낙후되고 소외된 전북을 발전시키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한 쾌거다”라며 “심평원 전주지원 설립은 전북이 광주지원 관할에서 독립하여, 전북 주축의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했다.

김성주 의원은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법안을 비롯해 건강도시 전주 만들기를 위한 건강동행센터, 근로자건강센터 설치 등 국민과 전북을 위한 4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점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이뤄낸 뜻깊은 정지력을 토대로, 떠나는 전북에서, 돌아오는 전북으로 만드는 데에 김성주가 앞장섰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실용정책으로 승부 걸어야”

‘새누리탈당’ 진영, 더민주 압당

“권위주의 맞서는데 힘 보탬” 박근혜정부 출신 두번째 인사 현 지역구 용산에 전략공천

새누리당에서 공천 배제된 뒤 탈당한 진영 의원이 2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입당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입당 공식화회에서 “더민주에 참여해 권위주의에 맞서는 민주정치, 서민친한 민생정치, 통합의 정치를 이루는 데에 저의 마지막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게는 특정한 지시로 움직이는 파당이 아닌 참된 정당정치가 소중하다”며 “이 시대의 정당이야말로 실천적 지도자에 실용적인 정책이 승부를 걸어야 할 때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게 정치는 출세도 권력도 영광도 아니었다”며 “정치는 꼭 지켜야 할 약속이었고 희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똥이커 생각해보면 제가 추구한 중심의 정치는 완전히 좌초됐다”면서 “그 동안 저 역시 권력정치에 휩싸였고, 계파 정치에 가담했으며, 분열의 정치에 몸담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들은 통치를 정치라 강조하면서 살벌한 배격도 정치로 미화했다”고 새누리당을 직격했다.

진 의원은 “저는 대한민국 주의자로서 새 깃발 들었다”며 “그 깃발을 함께 들 동지를 더민주에서 찾았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평소 김종인 대표의 생각이 제 생각과 상당히 비슷했다”며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과 시대상이 (함께하기에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열린 새누리당을 탈당 진영 의원의 입당 기자회견장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적합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민주 20% 컷오프를 앞서 ▲김기정(광주북)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이어 ▲정창대(서울 마포) ▲전병현(서울 동작) ▲이바경(서울 은평) ▲오영식(서울 강북) ▲정호준(서울 중성동) ▲이해찬(세종) ▲부좌현(경기 안성) ▲김동원(전북 남원) ▲최규선(전남 김제) 등 모두 10명을 컷오프했다. /이성주 기자

런 얘기는 전혀 듣지도 못했고,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진 의원은 지난 17일 새누리당 공천에서 배제되자 반발하며 탈당했다.

진 의원은 더민주에 입당한 박근혜정부 출신 두 번째 인사가 됐다 앞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이 더민주에 입당했다.

진 의원은 또 자신의 현 지역구인 서울 용산에 전략공천 됐다. /이성주 기자

“의회 집행부간 상생 필요”

전북도의회 송승환 의원(전주)은 최근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전북도 및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의회와 집행부간 ‘상생’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방의 회와 집행부간 관계설정’이라는 주제 강의에서 “의회는 지역 발전을 위해 집행부가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며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와 의원을 어렵게 생각하거나 불편한 관계로 여길 것이 아니라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의원이나 공무원의 기능은 다르지만 전북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북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역할은 같다. 공무원이 주요 현안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들과 협력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상상할 수 있고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신광영 기자